

中國과 高句麗의 鄣日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Jang il* of China and Koguryo

Jin-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s concerned with the *jang il* (鄣日).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race the origin of *jang il* and to identify forms and the meaning of it.

Significant findings and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It was found that *jang il* was a kind of brimmed hat with a round crown. People of Han Dynasty period wore *jang il*. It was favored by the people of Wei Chin (魏晉) Dynasty period of China and was a very popular hat in these periods.

It was used by farmers and merchants.

It was found that *jang il* was worn by a tribe of Kang (羌) in prehistorical period. It is considered that *jang il* of the Chinese, was derived from the people of Kang (羌).

In the Tang and Five Dynasty periods women also wore *jang il*. Women from the upper class appeared used *jang il*.

It appeared that Koguryoreans also used *jang il* : it was a kind of black wide brimmed hat with a round crown. which can be found in the tomb paintings of Yong Kang (龍崗). A horse rider wears *jang il*.

Key words : *Jang il*, *Do so*, *Dai mo*, hat, brimmed hat, round crown, flat crown, Chinese *jang il*, Koguryorean *jang il*.

I. 緒 論

우리나라 三國時代의 服飾 研究 資料는 主로 中國 古史書와 古文獻에 散在하여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귀한 자료들조차 그것들은 설명이 너무 간략하거나 모호하여 복식연구를 위하여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한 것들이 종종 있어 왔다. 또한 어떤 복식용어가 기록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古代 中國 것이라면 우리는 그들의 관점에서 그 용

語들을 해석하고 이해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따른다. 古代 中國人 自身들이 어떤 用語의 개념과 의미를 명확히 正義하고 밝혀 놓은 것이 있는 것도 아닐 때에는 우리 것을 알고 밝혀 내기 위하여서는 먼저 같은 主題의 中國것을 연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中國 古文獻에 高句麗 복식에 관한 자료가 기록으로 남아 있지만 그것은 단 몇 글자밖에 되지 않아서 그 用語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없는 것들 가운데 鄣日이라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高句麗의 鄣日이 무엇인지 규명하

는 것을 시도하여 보고자 한다. 高句麗의 郭日이 무엇인지 규명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中國의 郭日이 무엇인지 규명되어야 한다. 高句麗의 郭日에 관한 기록도 中國 문헌에서 발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中國의 郭日에 관한 자료도 中國 문헌에 散見될 뿐 中國에서도 郭日에 대한 연구는 진지하게 이루어진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실제로는 中國의 郭日 연구가 先行되어야만 高句麗의 郭日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中國과 한국의 문헌 자료, 고분벽화 자료, 고분탈굴 자료 등을 활용하고자 한다.

먼저 中國의 郭日에 관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中國의 郭日이 무엇인지 규명하고 그것은 언제부터 어디에서 나타났는지 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의 역사적인 것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 다음 中國의 郭日에 대한 위의 자료들을 종합하고 이것들을 기초로 하여 高句麗의 郭日이 무엇인지 규명하여 보고자 한다.

II. 中國의 郭日

高句麗의 郭日에 대한 기록은 中國 문헌자료에 수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中國인이 사용하였던 郭日이라는 말의 뜻을 먼저 알아야만 高句麗의 郭日이 무엇인지 또는 무슨 뜻인지 찾아낼 수 있다.

中國의 郭日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宋書 卷 三十一 志 第二十一 五行二에는 郭日에 대한 다음과 같은 記錄이 있다.

元康中, 天下商農通著大郭日.

童謠曰 屠蘇郭日覆兩耳, 當見瞎兒作天子. 及趙王倫篡位, 其日實眇焉.

郭日에 대한 기록은 晉書 卷二十八 志 第十八, 五行 中 에에서도 宋書 五行志에서와 같은 내용의 기사를 찾아 볼 수 있다. 卽 元康中 天下商農著大郭日. 時童謠曰 屠蘇郭日覆兩耳라고 있어 晉書에서는 童字 앞에 時字 한자가 더 있을 뿐이다. 宋書는 梁의 沈約이 撰한 것이고 晉書는 唐의 房玄齡이 撰한 것이기 때문에 晉書 五行志의 郭日에 대한 記事는 宋書 五

行志의 記事를 그대로 전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郭日의 郭字는 障字로도 쓴다. 郭日에 대하여는 太平御覽 卷 687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

晉八王 故事曰 初王倫將篡位 洛下童謠曰 屠蘇郭日覆兩耳 當有瞎兒作天子. 于時商農通著大裁障日倫實眇目也.

孫楚謝牋曰 大恩賜郭日其器雖小而禮遇甚弘昔衛紹錫六劍珠 而不用 楚雖不敏且受而藏之

위의 기록을 종합하여 보면 晉時代의 郭日은 머리 쓰개로서 두 귀를 덮었고 商農人들은 통상적으로 大郭日을 썼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古代 中國에서 郭日은 이미 晉代 이전부터 中國에 있어온 冠帽였는데 晉 惠帝 元康(291~300 A.D.) 中에는 大郭日이 天下商農人들에게 愛用되고 流行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郭日은 卽 머리쓰개로서의 笠이다. 卽 郭日은 頭冠, 帽(갓)의 의미로서의 笠인 것이다.

翟宜穎¹⁾도 晉八王 故事를 인용한 太平御覽 687의 郭日에 대하여 郭日 蓋笠也, 商賈著之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郭日은 笠이라는 說明만으로는 郭日이 어떤 종류의 笠인지 어떤 모양의 笠인지 확실히 알 수 없다.

먼저 古代 中國인이 笠이라고 하였던 머리 쓰개에 대하여 찾아 보기로 한다.

笠에 대하여 기록을 살펴보면 說文에는 笠, 笠無柄也.라 있고 篇海에 笠, 笠笠, 以竹爲之 集成 箬, 無柄曰笠, 有柄曰箬이라 있고 詩, 小雅 無羊 何蓺何笠. 傳, 笠所以禦暑. 詩, 小雅, 都人士 臺笠緇撮. 傳, 笠所以禦暑也. 詩, 周頌, 良耜 其笠伊糾. 傳, 笠所以禦暑也. 急就篇, 三, 竹器, 箬, 笠, 篲, 簾, 簾注에는 箬, 笠, 皆所以禦雨也. 大而有把, 手執以行. 謂之箬. 小而無把, 首戴以行. 謂之笠.이라 있어 笠과 箬은 竹으로 만들고 이 둘은 柄의 有無와 크기, 사용방법 등이 달랐다. 卽 笠은 帽의 一種이고 箬은 雨織類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笠은 비와 더위를 막기 위하여 썼고 箬은 비를 막기 위하여 썼다.

1) 翟宜穎 纂輯, 中國社會史料 叢鈔 甲集上冊, 1936, p.37.

위의 기록에서 보면 中國 古代의 笠은 우리나라의 삿갓과 같은 형으로서 그 크기가 삿갓보다 작은 것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卽 中國 古代의 笠은 檐 卽 遮陽과 帽屋의 구별이 없는 三角形의 머리쓰개였다. 이러한 三角形 笠帽의 예는 漢代作으로 알려지고 있는 武梁詞 書像石 夏禹像에서 찾아볼 수 있다.

笠은 시대가 흐르면서 帽屋 部位에 簷 卽 遮陽 부위가 있는 종류의 帽笠이 생겼다.

周錫保는 大障日帽 條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大障日帽 爲農商們所戴.

宋書 五行志 載：元康中天下商農，通著「大彰日」，其形是彰日覆耳，也叫做屠蘇。言 其形如屋式之大而又覆耳²⁾。

宋書 五行志에는 大彰日이 아니고 大障日이라 있고 晉書 五行志에도 大障日이라 있기 때문에 위에 보이는 大彰日과 彰日의 彰字는 鄣 또는 障字여야 한다. 彰字와 鄣字는 漢音으로 同음이지만 이 두 글자의 의미는 전혀 다르다.

鄣日 또는 障日이 兩耳를 덮었다고 하므로 그 의미에서도 鄣日이 맞다.

위의 例文에서 周錫保는 大鄣日을 屠蘇라고도 부른다고 하였는데 먼저 屠蘇란 말의 의미를 찾아보면 草名, 屋名, 冠名, 飲名 등이 있다. 屠蘇는 本來 草名이다. 이 草名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유래된 것이다. 中文大辭典에 의하면 詩話補遺 屠蘇 草也. 通雅 四十一 屠蘇 闕葉草也. 因爲屋名 爲冠名, 爲飲名이라 있다. 屋名으로서의 屠蘇는 草庵, 庵, 屋平, 平屋을 의미한다. 廣雅 釋宮에 屠蘇, 庵也라 있고 廣韻에 庵, 屠蘇, 草庵이라 있다. 通俗文에 屋平曰屠蘇라 있으며 集韻에도 庵, 一曰, 屋平曰庵라 있다. 事物異名錄, 宮室, 屋에도 廣雅, 屠蘇, 平屋也라 있다.

庵은 釋名 釋宮室에 草圓屋曰蒲, 又謂之庵, 庵, 庵也. 所以自覆庵也.라 있고 集韻에도 圓屋爲庵이라 있다. 廣韻에는 庵, 小草舍也.라 있다.

卽 屠蘇는 둥근지붕의 단층 草屋을 의미하는 것이다.

飲名으로서의 屠蘇는 藥名인데 그것은 屠蘇酒를 말한다. 屠蘇酒는 肉桂, 山椒, 白朮, 桔梗, 防風 등을

섞어서 만든 술이다. 正月 초하룻날에 어른과 아이들이 衣冠을 갖추고 세배를 한 후에 屠蘇酒를 마셨다고 한다.

冠名으로서의 屠蘇의 의미를 찾아보면 中文 大辭典에서는 屠蘇를 冠之有屋者曰屠蘇, 大帽也.라고 한 설명을 발견할 수 있다. 卽 冠名으로서의 屠蘇는 帽屋이 있는 冠을 말하며 大帽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屠蘇는 帽屋이 있는 冠을 말한다는 설명만으로는 屠蘇가 어떤 모양의 冠帽인지 알기에는 불충분하다. 帽屋이 있는 冠帽도 그 帽屋의 형태는 圓頂, 平頂, 尖頂 등 여러 가지가 있고 설명 帽屋이 있는 冠帽라 하더라도 檐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屠蘇가 大帽란 설명은 屠蘇가 어떤 모양의 冠帽인지의 의문을 풀 수 있는 귀중한 단서가 된다.

古代 中國人은 일반적으로 冠帽의 帽頂이 둥근 것을 帽라고 하였다.

帽에 대하여 晉書 輿服志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帽名 獐冠也, 義取於蒙覆其首, 其本纒也, 古者冠無幘, 冠下有纒, 以綰爲之, 後也施幘於冠, 因或裁纒爲幘, 自乘輿宴居, 下至庶人無爵者, 皆服之. 成帝咸和九年, 制聽尚書 八座丞郎門 下三省侍官 垂車, 白幘低幘, 出入掖門. 又二宮直官著烏紗幘, 然則士人宴居 皆著幘矣. 而江左時 野人已 著帽. 人士亦往往而然, 但其頂圓耳, 後乃高其頂.

大鄣日은 屠蘇이며 屠蘇는 大帽이므로 大鄣日과 屠蘇가 어떤 帽子인지 알기 위하여 大帽에 대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魏晉時代의 大帽는 本來 野老服이었다. 中華古今注에 大帽子, 本 叢叟草野之服也. 至魏文帝, 詔百官, 常以立冬日 貴賤通戴, 謂之溫帽.라 있다.

事物紀原 冠冕首飾部 大帽에도 大帽, 野老之服也라 있다.

魏晉時代의 大帽는 溫帽로서 겨울용으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溫帽로서의 大帽의 재료로는 麕類가 사용되었으리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魏晉時代에 麕帽는 일반적으로 사용된 帽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2)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1983), p. 143.

三才圖會, 大帽圖說에 大帽管見釋官, 云, 國初, 高
 皇幸學, 見諸生班列口中, 因賜遮蔭帽, 此基制也. 今
 起家科貢者則用之. 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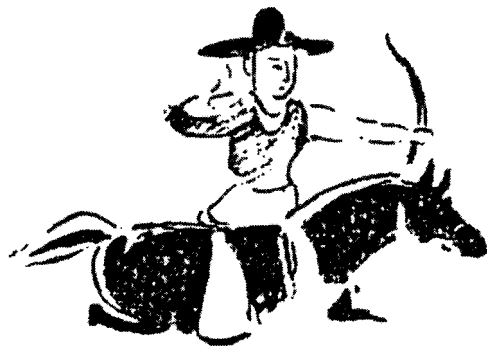
明代의 大帽는 三才圖會에 그 그림이 있어 大帽
 가 어떤 모양의 帽子인지 알 수 있다. 明代의 大帽는
 <그림 1>에서 보듯이 遮陽은 좁고 帽屋이 둥글고
 약간 높은 편이다. 三才圖會에 보이는 明代의 大帽
 라는 것은 朝鮮時代의 歌童이 戎服에 썼던 笠子 卽
 米苧草로 만든 帽頂이 둥근 草笠과 그 형태가 거의
 同하다. 金時習의 초상화에서 그가 쓰고 있는 圓
 頂笠子帽의 모양도 大帽의 모양과 거의 같다. 朝鮮
 時代의 氈笠도 帽頂이 둥글고 遮陽이 있는 점에서
 大帽와 같다.

遮陽이 있고 圓頂인 笠子形 帽子 卽 大帽는 崑崙
 山 岩畫 征戰圖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그림의 人物
 들은 다양한 종류의 모자를 쓰고 있는데 騎馬人物들
 가운데 一人은 大帽를 쓰고 있다. 崑崙山 岩畫는 古
 代의 羌族이 차지하였던 땅에 있어 史前 羌人과 古
 代 遊牧民族의 冠帽과 服飾에 대한 것은 물론 그들의
 生活相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연구자료이다.

이와 같이 大帽는 羌族이 일찍이 사용하였던 여
 러 가지 종류의 帽子 가운데 하나였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農民이 笠子帽를 쓴 것은 漢代 이래로 習慣을 이
 루었다³⁾.

漢代에 笠帽를 쓴 예는 寶成鐵路沿綫出土 農民



<그림 1> 龜神塚 着笠 騎馬 人物圖
 (李如星, 朝鮮服飾考, p.144)

陶俑에서 볼 수 있다. 이 陶俑이 쓰고 있는 笠帽는
 帽屋이 얇다. 이 陶俑의 笠帽와 비슷하지만 帽屋
 이 이 陶俑의 笠帽보다 높고 遮陽部位가 더 좁은
 漢代의 笠帽를 遼陽三道壕 漢墓壁畫의 騎馬人物
 像에서 볼 수 있는데 帽頂은 깎털로 장식했다.

敦煌 23窟中 唐壁畫의 雨中耕作農民 두 사람이
 연 녹색의 笠子帽를 쓰고 있다.

五代시대의 屋頂이 둥근 모양의 笠子帽는 敦煌 61
 窟 西壁中央 五台山圖 部分 萬菩薩樓閣화 그림에서
 도 볼 수 있다. 아래 제일 왼쪽 어깨에 짐을 메고 길
 을 떠나는 인물은 黑色 圓頂笠子帽를 썼다. 같은 61
 窟 西壁北側 벽화의 중간 왼쪽에서 둘째 인물과 하
 단 제일 왼쪽 인물도 하늘색 圓頂笠子帽를 썼다. 앞
 의 인물과 같이 이들 두 인물도 어깨에 짐을 메고 길
 떠나는 모습인 것 같다. 또한 61窟 西壁 北側에도 그
 림 제일 윗쪽의 왼쪽 둘째 인물과 大佛光之寺란 글
 자 왼쪽 인물은 하늘색 圓頂笠子帽를 썼고 아랫줄
 오른쪽에서 둘째 인물은 黑色 圓頂 笠子帽를 썼다.

61窟 西壁南側의 河東圖山門 벽화에도 마부, 말탄
 사람, 그외 여러 사람이 黑色圓頂 笠子帽를 썼으며
 西壁 北側 벽화에도 黑色圓頂 笠子帽를 쓴 人物들
 여럿이 보인다.

中唐시대에 吐蕃 婦人이 人帽를 쓴 예를 敦煌 莫
 高窟 159窟 벽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中央의 翻領衣
 를 입은 婦人이 쓴 遮陽있는 帽子가 大帽이다.

敦煌 莫高窟 100窟 五代時 回鶻 公主像은 白色의
 shawl collar 翻領이 달린 衫袴의 窄袖 黑色衣를 입었
 고 머리에는 그림이 부분적으로 훼손되어 완벽하지
 않으나 遮陽이 있고 圓頂인 黑色 大帽를 쓰고 있다.

唐末 내지 五代時의 大帽는 曹議金 夫人像이 쓰
 고 있는 帽子에서 더 확실한 것을 알 수 있다. 曹議
 金 夫人의 옷도 敦煌 莫高窟 100窟의 回鶻 公主像의
 옷과 같은 모양의 shawl collar 翻領에 窄袖衣를 입었
 다. 周錫保는 曹議金 夫人像이 쓰고 있는 帽子를 大
 帽라고 하고 大帽는 羌人이 과거에 일상적으로 쓰던
 것이라고 하였다⁴⁾. 그의 이 말이 어디에서 근거한 것
 인지, 그가 의미한 과거란 말이 어느 때를 의미한 것
 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崑崙山 岩畫征戰圖에서 騎

3)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174.

4)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1983), p.236.

馬人物이 大帽을 쓴 것이 보이고 後代에도 羌族 땅에 해당되는 지역에서 大帽을 쓴 인물들을 그림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大帽란 말은 中國에서 이미 魏晉代부터 있어온 冠帽 이름일 뿐 아니라 漢代에도 이미 圓頂 笠子帽은 있어 왔다. 遼陽三道壕 漢墓 벽화의 騎馬人物像이 쓰고 있는 笠帽은 明代 三才圖會에 보이는 大帽의 그림과 그 형태가 비슷하다.

中唐時代의 吐蕃婦人像이 쓴 大帽과 曹議金 夫人像이 쓴 大帽은 三才圖會에 보이는 大帽의 그림과 기본 형태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지금까지의 논의에서 보았듯이 遮陽이 있는 圓頂帽 卽 漢語로 大帽란 이름의 帽子는 본래 그것의 연원이 崑崙山 岩畫가 그려진 지역을 차지하고 살았던 羌族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卽 本來 大帽은 古代로부터 西域地域의 遊牧民族이 사용하였던 帽子였는데 그것이 中國으로 流入되어 大帽란 이름을 가지게 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後代의 기록으로 미루어 보아서 본래 大帽의 材料는 氈이었다고 믿어진다.

敦煌 莫高窟 벽화에서 唐 내지 五代時 圓頂笠帽을 쓴 인물들을 보면 대부분의 인물들은 길 떠나는 사람들과 농부들이다. 그들은 짐을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 말을 탄 사람, 마부들과 농부들이다. 그들이 쓰고 있는 大帽의 색은 주로 黑色이고 그의 靑色, 연 녹색, 백색 등이 있다.

이 예는 大帽가 本來 草野人이 썼던 것이라는 기본 용도는 그대로 계속된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屋名으로서의 屠蘇가 草圓屋 또는 圓屋의 뜻인 점을 미루어 볼 때 屠蘇라고 일컬어졌던 冠帽의 帽屋도 圓頂이었을 것이다. 通雅에서는 屠蘇란 冠名이 屠蘇란 草名에서 유래된 것이라 하였고 周錫保는 屋式과 그 形態가 비슷한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상에서와 같은 여러 가지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면 魏晉시대의 大帽은 圓頂笠帽였고 漢代의 圓頂笠帽과 기본형태는 별 차이가 없었다. 그것은 또한 唐代와 그 후대의 大帽와도 큰 차이가 없었다는 것이 분명하다.

大帽의 기본 용도도 그대로 있는 것에 더하여 범

위가 넓어졌을 뿐이었다. 大帽의 색, 재료, 장식방법, 사용방법, 형태 등은 시대와 지역 또는 나라에 따라 또는 유행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

南北朝 시대의 河南 鄧縣 出土 鼓吹部曲 磚刻 畫像의 四人은 縛褲 袴褶을 입고 머리에는 遮陽이 위로 뺀은 一種의 笠帽을 쓰고 있다. 笠頂에는 鳥羽 장식의 있다.

이 笠帽을 沈從文은 荷葉帽이라고 명명하였다⁵⁾.

반면 周錫保는 이 笠帽을 大帽이라고 하였다⁶⁾.

그러나 이 笠帽의 모양은 沈從文이 명명한 것처럼 어떻게 보아도 荷葉形은 아니다. 荷葉은 크고 둥글다. 이 笠帽의 遮陽은 Quaker hat와 Puritan hat의 遮陽과 약간 비슷하게 遮陽이 전체적으로 위로 굽었지만 앞뒤의 遮陽의 너비는 遮陽의 兩側面 보다 훨씬 좁고 遮陽의 兩側面은 뺀은 部位가 뾰족하게 각이져 있다.

이 笠은 遮陽의 兩側面이 뾰족하게 角이 진 것으로 본다면 一種의 bicorn形 笠子라고 말할 수 있다. 이 笠子の 遮陽은 荷葉과 같은 圓形이 아니다. 그러므로 沈從文이 명명한 荷葉帽란 이름은 이 笠帽의 이름으로 적합하지 않다.

周錫保는 鄧縣 出土 磚刻畫像 人物들이 쓴 笠帽을 大帽이라고 하였는데 이 磚의 人物들이 쓰고 있는 笠帽은 屋頂이 있고 遮陽이 있다는 점에서는 大帽와 通한다. 그러나 大帽라고 칭하는 帽子는 帽屋이 圓頂이고 遮陽이 위로 굽어 뺀치지는 않았다. 그리고 漢代와 唐代, 五代, 元代, 明代에도 圓頂笠은 그 기본 모양이 크게 다르지 않게 있어 왔다. 그러므로 鄧縣 出土 磚에 보이는 人物들이 쓰고 있는 笠帽은 大帽이라고 하는 帽子의 모양과 일치하지 않다.

唐代 이후로 보이는 소위 斗笠이란 것은 大帽의 모양과 비교하면 斗笠의 遮陽은 大帽보다 훨씬 넓고 帽屋은 大帽보다 얇다. 遮陽이 넓은 이런 斗笠形 笠子が 소위 大鄴日이었을 것이다. 笠子の 遮陽을 넓히는 것이 笠子の 帽屋을 높이는 것보다 더 실용적이고 쉬웠을 것이며 笠子の 帽屋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大帽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문헌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卽 朴通事諺解 中, 26에는 大帽에 대한 다음과

5) 沈從文, 中國 古代服飾 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1981), p.133.

6) 周錫保, 中國 古代 服飾史, (台北: 丹青圖書有限公司, 1983), p.169.

같은 기록이 있다.

大帽如本國笠子之制. 南村 輟耕錄云, 胡石塘先生嘗應聘入京, 世皇 召見於便殿, 綵進 不覺笠子敝側, 上問曰 秀才何學 對曰 修身齊家治國平天下之學, 上笑曰 自家笠子尙不端正 又能 平天下耶, 此 元時戴笠也. 今俗唯出外行者及新婚婿郎 無職者 親迎之夕 戴大帽.

또한 같은 朴通事 諺解 中 26에는 雲南氈 大帽兒와 白駝 氈 大帽兒 등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元代에도 역시 大帽는 겨울용으로도 사용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才物譜에도 朴通事 諺解에서 大帽如本國 笠子之制라고한 기록과 同一한 내용의 기록이 보인다.

卽 才物譜 氈頭條에 다음과 같은 글이 보인다. 笠帽 與氈頭不同 明時有二帽 大帽有遮陽如東方之笠子 小帽如東方 蠅頭帽 東俗誤以帽爲氈頭也.

朴通事 諺解와 才物譜 저자들은 大帽는 우리나라의 笠子와 같은 것이라 하였는데 우리나라의 笠子에는 笠(黑笠)도 있고 朱笠, 草笠, 平涼子, 氈笠, 屈笠 등이 있어 이들 中 어느 것을 의미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만약 그들이 우리나라의 笠子라고 한 것이 우리 나라의 대표적 笠子인 소위 笠(黑笠)을 의미한 것이었다면 笠은 帽屋이 半頂이기 때문에 圓頂인 大帽와는 다른 모양이다.

Ⅲ. 高句麗의 郭日

高句麗인이 郭日을 사용 하였었다는 사실은 翰苑 蕃夷部 高麗條에서 확인된다. 高句麗의 郭日에 대하여는 李如星이 翰苑 高麗條의 郭日을 猪毛布라고 언급한 것이 있다^{7,8)}.

이은창과 柳喜卿⁹⁾도 郭日은 猪毛布라는 李如星의 견해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李如星이 참고한 翰苑 高麗條에는 郭日이 猪毛布란 기록이나 의미는 찾아볼 수 없다.

翰苑 蕃夷部 高麗條에는 郭日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高麗記云 其人亦造錦 紫地纈文者爲上 次有五色錦 次有雲布錦 又造白疊布 青布而尤佳 又造郭日. 華言接離其毛卽靺鞨猪髮也.

위의 기록에는 高句麗인이 郭日을 만든다는 기록 밖에 없다. 高句麗의 郭日에 대한 翰苑의 기록만으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高句麗의 郭日에 대한 이 기록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주는 귀중한 시각 자료를 우리는 高句麗 古墳壁畫의 人物像에서 찾아볼 수 있다. 龍崗郡 龜神塚 狩獵人物圖의 말을 타고 활을 쏘고 있는 騎馬人物이 쓰고 있는 冠帽는 帽屋이 圓頂이며 높고 笠簷이 廣簷인 黑色 笠子이다. 이 圓頂高帽의 廣簷 笠子が 高句麗의 郭日이다. 笠子の 簷이 廣簷인 것으로 보아서 이것은 소위 大郭日이라고 불리는 것이 분명하다.

李如星은 龍崗花上里 聯寧古墳의 二體의 狩獵人物圖의 冠帽가 확실히 笠으로 인정된다고 하였다¹⁰⁾.

高句麗 고분벽화에서 郭日은 狩獵하는 騎馬人物이 쓰고 있다. 龜神塚 壁畫는 高句麗 榮留王(618 A.D~642 A.D) 내지 寶藏王(642~668 A.D) 時代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머 앞의 中國의 郭日項에서 郭日은 古代로부터 騎馬人物들이 썼던 冠帽였던 것을 보았다.

新羅의 郭日에 대한 기록은 발견할 수 없지만 天馬塚에서 출토된 白樺 樹皮製 彩畫人物圖笠簷과 金鈴塚出土 白樺樹皮 笠檐은 新羅에도 帽屋과 笠檐이 구별되는 笠子が 있었다는 것을 증명한다. 이 笠子の 帽屋이 어떤 형태의 것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帽屋은 高句麗 감신총 기마인물의 郭日과 같은 帽屋이 높고 圓頂이며 笠檐은 廣簷인 笠子 卽 大郭日이었을 것이라 믿어진다.

加耶에서도 簷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자료가 출토되었다. 達西 제55 古墳에서 金銅板 環狀金具가 출토되었는데 이것은 冠帽의 유포이라고 보고되었다¹¹⁾.

7)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p.302.

8)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서울: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8), p.152.

9)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p.122.

10)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 白楊堂, 1947), p.144.

11) 1923年度 古蹟調査 報告, 第1冊, 1931, p.71.

IV. 結 論

이상에서의 中國과 高句麗의 韓日에 대한 논의의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도출하면 대략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韓日은 古代의 笠의 一種에 속하는 圓頂 簷笠이다. 韓日에 대한 기록은 魏晉時代의 冠帽名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中國에서 이미 漢代부터 사용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魏晉時代에는 大韓日이 農商人들에게 크게 流行하였었다. 大韓日을 屠蘇라고도 불렀는데 屠蘇는 大帽였다. 大帽는 史前의 羌族이 사용하였던 冠帽였고 後代에도 古代의 羌族地域에 속하였던 지역 사람들이 계속 사용하였던 점 등으로 미루어 中國 古代의 圓頂 簷笠帽 卽 韓日은 遊牧民族에게서 中國으로 流入된 것으로 믿어진다.

韓日은 古代로부터 전투, 여행할 때의 騎馬人物들이 흔히 착용하였고 걸어서 길을 가는 사람이나 農民도 착용하였을 뿐 아니라 商人도 착용하였다. 唐代와 五代 時代에는 婦人도 韓日을 썼던 것으로 나타났다.

高句麗의 韓日도 中國의 韓日과 같은 圓頂 簷笠이었다. 色은 黑色이며 笠簷이 넓은 大韓日을 龍崗郡 龕神塚 古墳壁畫의 말을 타고 활을 당기며 사냥하는 人物이 쓰고 있는 冠帽가 韓日이었다. 高句麗에서도 韓日은 말을 탈 때에 썼었다는 것은 中國, 史前의 羌族의 풍속에서와 같다.

高句麗의 韓日에 대한 古墳壁畫 자료와 문헌자료는 극히 제한되어 있으므로 高句麗인이 韓日을 사냥할 때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에도 사용하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高句麗인도 中國인들과 같이 韓日을 農商人이나 旅行時에 널리 사용하였을 것이라 추정된다.

韓日은 高句麗에서 뿐만 아니라 新羅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高句麗와 新羅의 韓日은 大韓日이었고 韓日은 中國을 거쳐 高句麗에 들어왔으며 新羅에 전해졌을 것이라 생각된다.

參考文獻

康熙字典.

高句麗 古墳壁畫.

舊唐書.

瞿宣穎. 中國社會史料叢鈔, 1936.

南廣祐. 古語辭典. 서울: 一湖閣, 1987.

南史

南齊書

敦煌文物研究所. 敦煌文物寶庫. 台北: 地球出版社, 中華民國 76年.

北史

辭海

三國志

三才圖會

隋書

新唐書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 商務印書館 香港分館, 1981.

梁書

柳喜卿. 韓國복식사연구.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80.

李如星. 朝鮮服飾考. 白楊堂, 1947.

李龍範. 高句麗人の 烏羽插冠에 對하여, 東國史學, 제4집, p. 1~30. 東國大學校 史學會, 1956, 12月.
이은창. 韓國복식의 역사. 세종대왕 기념사업회, 1978.

朝鮮古蹟圖譜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 丹青圖書 有限公司, 1983.

中文大辭典 編纂委員會. 中文大辭典. 台北: 中國文化院 出版部, 中華民國 56年.

冊府元龜

太平御覽

通典

翰苑

後漢書

William, S. W. Wells. A Syllabic Dictionary of the Chinese Language.